

새 짝 찾은 김연경, 부담 줄고 시너지 ‘팍’

엘레나와 흥국생명 ‘쌍포’

두 시즌전 공격 도발이 체력 부담 KGC출신 검증된 자원 훈련 합류 블로킹에 능하고 몸 날려 수비 김미연·정윤주 등 백업도 든든



여자배구 인천 흥국생명이 김연경(왼쪽)에 이어 수준급 외국인 엘레나 크라치노비치를 영입해 ‘쌍포’를 구성했다.

김연경(34)과 엘레나 크라치노비치(25·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입으로 수준급의 공격진을 구성한 인천 흥국생명이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시즌 대전 KGC인삼공사에서 뛰었던 엘레나가 흥국생명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최근 선수단 훈련에 참가하며 새로운 팀 동료들과 손발을 맞췄다. 엘레나는 “언제나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는 한국 팬들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성숙한 플레이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 여러 가지로 달라진 것이 많은 시즌인 만큼 팀에 빨리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연경과 함께 ‘쌍포’로 흥국생명의 공격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엘레나의 합류는 김연경에게 큰 힘이 된다. 김연경은 2020~2021시즌 648득점(공격 성공률 45.92%)을 기록했다. 득점 부문 6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능력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당시 팀 공격

을 홀로 소화한 탓에 시즌 후반이 갈수록 체력이 어려움을 겪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면 관리가 필요하다. 긴 시즌 모든 경기 모든 세트의 공격을 홀로 책임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부담을 줄이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V리그 여자부 경험이 있는 ‘검증된 자원’인 엘레나를 영입했다. 2020~2021시즌에 김연경과 호흡을 맞췄던 브루나 모라이스(23·브라질)는 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진을 거듭하며 374득점(공격 성공률 31.28%)에 머물렀다. 세대교체가 진행되다 보니 김연경과 외국인 공격수 외에는 해결해줄 선

수가 많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팀 공격이 김연경에게 집중됐고, 김연경이 컨디션 난조로 공격력이 떨어지면 팀도 맥이 무너졌다.

엘레나는 이런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다. 한 시즌 동안 V리그 여자부를 경험하며 노하우를 터득했다. 김연경의 공백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뜻을 해줄 수 있다. 아울러 코트 위에서의 성실함도 김연경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196cm의 장신을 이용한 블로킹에도 능하며 수비를 할 때는 몸을 날리는 것도 한 서슴지 않는다. 공격력도 입증해냈다. 2021~2022시즌 KGC인삼공사 소속으로

672득점(공격 성공률 39.44%)을 쌓으며 득점 부문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김연 한국도로공사전에서는 홀로 35득점을 터트리며 폭발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 6위(10승 23패 승점 31)로 시즌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팀 득점은 3위(2572점)를 차지했다. 새롭게 합류한 김연경과 엘레나 외에도 ‘살림꾼’ 김미연(29), 신예 정윤주(19) 등 백업 자원들도 든든하다. 여기에 안정적인 리베로 김해란(38)까지 존재해 다가오는 새 시즌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강상헌기자 ksh@sportsbiz.co.kr



우상혁 다이아몬드리그 출국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7일 오전 2022 세계육상연맹 대아몬드리그 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상 복귀 신유빈 부활 신호탄

손목엔 핀 박는 뒤 첫 대회서 세계랭킹 10위 다이아 3-1 꺾어



“백악이” 신유빈(18·대한항공·사진)이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신유빈은 지난해 11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전여 경기를 기권한 이후 6개월간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실상가상으로 같은 부위 부상이 재발해 결국 올해 5월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미뤄와 이동 시절부터 ‘탁구 신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9년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했고, 2014년에는 MBC ‘무한도전’에도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방송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9년 역대 최연소인 14세 11개월 16일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며 모두의 기대에 부응했다. 2004년생으로 만 18세인 신유빈은 지난해 막을 내린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탁구 종목 역대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1988년 서울 대회에 참가한 홍자옥(당시 18세)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옛날 얼굴과 당찬 함성으로 세계 강호들과 맞서 국내 스포츠 팬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올림픽 이후 그는 더욱 바빠졌다. ‘홍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각종 방송 출연은 물론 대회 출전 등 이미 강행군이 문제해 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휴스턴 대회에서 일이 터졌다. 안고 있던 부상이 재발해 여자 복식과 혼합 복식을 기권했다. 당시 항저우 아시안 게임과 청두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도 포기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자리를 비운 시기 김나연(17·포스코에너지)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로 세대교체에 성공한 터라 아쉬움이 컸다. 다시 라켓을 잡기 위해 재활에 힘썼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성인 무대 데뷔 이후 가장 긴 공백기를 가졌다. 재활을 거쳐 올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먼트에서 열린 2022 월드 테이볼테니스(WTT) 피터시리즈에 출전해 복귀전을 치렀지만 부상 부위 통증으로 다시 운동을 접었다.

부상 부위에 핀을 박는 수술까지 받은 신유빈은 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오려 배움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손목을 쓰지 않는 대신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했다. 스쿼트를 하면서 들어올리는 바벨의 무게를 80kg에서 100kg까지 늘렸다.

노력은 결과로 이어졌다. 3개월 만의 복귀전인 WTT 퀸텀사 투어 2022에서 세계랭킹 10위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여자 단식 1회전(32강전)에 아드리아나 디아스(푸에르토리코)를 3-1(5-11 11-8 11-8 11-5)로 꺾었다. 디아스는 남미의 북중미를 통틀어 미주 여자탁구 최강자로 꼽힌다. 2019년 판아메리카게임 3관왕, 판아메리카 탁구 선수권대회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16강전에서 대만의 정이징에게 0-3(7-11 5-11 8-11)으로 패했다. 디아스를 누르고 부활의 신호탄을 쏘지만 야망에 다음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비록 기대했던 메달은 나오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러 기대감을 높였다. 김호진기자 hoo1006@sportsbiz.co.kr

3개월간 세 차례 주니어 신기록... 테보고 ‘포스트 볼트’

열아홉 나이에 육상 100m 9.91초



이본 브롬멜(27·미국)이 작성한 9초97의 종전 20세 미만 기록을 0.01초 앞당겼다. 9초대를 뺀 사상 두 번째 20세 미만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6일(이하 한국 시각) 2022 유진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 예선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9초96을 넘어서 9초94로 새롭게 주니어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3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2022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20세 미만) 남자 100m 결선에서는 무려 9초91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자신이 작성한 9초94를 0.03초 앞당기며 20세 미만 세계신기록을 또 썼다. 약 3개월 동안 20세 미만 남자 100m 세계기록을 3차례나 새롭게 작성했다.

테보고가 주니어 무대에서 작성한 기록은 지난해 끝난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 기록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다. 당시 우승을 거머쥔 프레드 커리(27·미국)는 9초86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 마빈 브레이시(30·이상 미국)는 9초874로 2위를 거머쥐었고,

브롬멜은 9초876으로 3위를 차지했다. 앞서 언급한 커리와 2020 도쿄올림픽 2관왕에 올랐던 리본트 마르셀 제이켄스(28·이탈리아)가 대표적인 ‘포스트 볼트’의 선두 주자다. 그러나 이들은 2024 파리 올림픽이 되면 30대를 바라본다. 단거리 육상에서 나이는 중요하다. 젊은 신체 일수록 폭발력이 커진다. 볼트가 9초58의 세계신기록을 작성할 때도 23세였다. 테보고는 21살의 나이로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에 알맞은 나이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의 절주가 기대된다.

강상헌기자 ksh@sportsbiz.co.kr

제50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2022.8.18-9.4 | 목동야구장·신월야구장 | 전국 87개 고교팀 참가

EVENT

구장 입장권 추첨 이벤트 주말 및 공휴일 운영중
입장권 추첨은 목동야구장 크리닝타임(5회말 후) 시 입장권번호로 진행합니다.

한국일보 문화올레 우승팀과 스코어를 예측하라!
8강 진출팀 결정전까지 8강 대진 결정전까지 우승팀과 스코어를 맞춰주세요!
한국일보 문화올레 facebook.com/hankookilboevent

주최 | 한국일보  KBS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KSPB  sportstoto  The Korea Times  Global E&B  한스경제  PGBANK
방송 |  SPOTV  EBS  INTERPARK